

그로컬(glocal)시대의 시민과 도서관

이종권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의교수

1. 그로컬시대의 전개와 그 명암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최근 들어 ‘그로컬’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여 관공서나 대학의 기획 문서에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아보니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이며, 우리말로로는 ‘세방(世方)’이라고 한다는 인터넷 설명이 나왔다. 외래어라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의미상으로는 정말 그럴듯한 말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사람들은 물리적인 교통을 넘어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사정없이 교류하고, 세계 모든 지방의 문화가 복잡하게 섞여 들어 다문화 ‘융합’을 향해 빠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확실히 우리의 삶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되고 있다. 우선 눈에 보이는 외형적 모습부터 이제 어느 나라 도시인지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언

어와 문화도 이제 무엇이든 새롭고 유용한 것이면 교류하여 쓸 만큼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가야금이 비틀즈 음악을 연주하고, 우리가 개발한 조그만 반도체 칩이 세계의 정보를 담아 ‘내손안의 도서관’을 구현할 수 있고, 세계의 언어가 검색과 동시에 자동 번역되며, 언제 어디서나 나의 휴대폰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는 가히 ‘신의 기적’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만 같다. 1960년대에 필자의 선친께서는 앞으로 ‘앉아서 천리를 보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처럼 말씀하셨는데, 이제 천리가 아니라 몇 억만 리 까지도 보게 되었으니 바야흐로 인간 세상은 모든 것이 기적처럼 변하는 신의 경지로까지 치닫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간 세상이 신의 세계로 한발 한발 다가간다고 해서 마음 놓고 좋아하고 있을 일만은 아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신의 기적처럼 변화되어 가는 사이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구석에서는 또 다른 ‘악신’이 지켜보며 어떠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인간은 아직 ‘무지한 신’이기 때문

이다. 그 단초는 바로 환경오염과 지구 온난화와 같은 크고 작은 재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상승해도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가 죽고 바다 속의 산호초가 사라지는 등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기후 변화가 확실히 감지되고 있다. 안전지대였던 동해안 영동지방에 때아닌 돌풍과 물난리가 나는가 하면, 6월의 더운 날씨에 우박이 내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기도 했다. 또한 진도 4.0을 웃도는 지진도 가끔 우리 한반도를 노크한다. 온대몬순지역이라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열대 몬순지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같은 현상을 지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그로컬시대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로컬사회는 우리가 직면하는 시대의 대세이며, 앞으로 인류사회에 대체적으로 행복을 줄 것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대처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아프리카 난민이 굶주리며 죽어가도, 그들이 문맹의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어도 대다수의 나라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가 하면, 당장 내 코앞의 공기가 오염되고 있어도 검은 연기를 내뿜는 차를 보란 듯이 몰고 다니며 모든 오염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이 한심한 인간들의 작태는 인류 전체의 큰 행복을 훼손하기에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다. 우선 당장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이러한 근시안적인 행태는 그로컬사회의 보다 큰 행복을 훼손할 것이며, 나아가 지구라는 공을 어디로 굴러 떨어지게 할지 모르는 위험한 '자학행위'임을 우리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2. 그로컬시대의 시민생활, 그 깨달음과 실천

앞서 그로컬사회의 명암을 생각해 보면 향후 우리의 생활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컬이라는 '멋진' 신조어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행복한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주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과업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우선은 모든 시민이 눈을 크게 뜨고 현시대의 그로컬문명사회를 올바르게 통찰하여 각자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성실하게 실천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일을 찾으면 잘 찾아지지 않을 것이며 부지불식간에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힘은 적지만 우리고장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점점 범위를 넓히면서 스스로의 할 일을 찾아보면 조금은 쉽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컬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먼저 타자를 위한 봉사정신으로 제 할 일을 찾아 하려는 기본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모든 시민들이 제 역할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만한 기제(機制)가 없을 것 같다. 누구든지 '뭘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간적, 실천적 교육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모든 사람

들이 앞서 제시한 그로컬시민의 봉사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정책방향을 확고히 함은 물론, 각 연령대별, 사회계층별로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어떤 일에 종사하든 그로컬시대에 알맞은 일을 찾아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는 일찍이 이러한 인류의 지속적 교육 필요성에 대비하여 1960년대부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주관하여 평생교육(life long, life wide education)이라는 훌륭한 교육개념을 창안해냈다. 인류가 지향하고 희망하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토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포함되고,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무형식교육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평생교육을 통해 그로컬사회에는 항상 새로운 학생, 새로운 교사, 새로운 교수, 새로운 학자, 새로운 직장인, 새로운 기업인... 등등 모든 시민들이 신선한 통찰력을 가진 세계시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말은 좋은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그로컬사회'는 시민의 평생교육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아니요'이다.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실천해야만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막막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이상이 좋더라도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면 이는 이상(理想), 그 이상(以上)도 이하

도 아니게 된다. 이상을 실현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제도적 인프라가 굳건하게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새 도서관제도의 모색, 시민과 더 친근한 도서관

물론 우리나라에 평생교육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방송대학교, 각 대학들의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원, 각종 도서관, 문화원, 기업의 연수원, 백화점문화센터 등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만으로 그로컬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방송대학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로 하여금 개설되어 있는 전공학과를 이수, 졸업시키는 엄연한 대학이다. 따라서 시민의 모든 평생교육을 방송대학에만 의존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각 대학 부설 사회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며 수업료가 비싸 시민들이 여간해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평생교육의 효과를 살리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 공공도서관은 문화강좌, 취미강좌, 기초어학강좌, 컴퓨터강좌 등을 개설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도서관 본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의 성격으로 인식되고 있어 시민의 평생교육에 본질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경영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으로, 기관의 홍보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도서관을 연구하는 사람이므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하여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

겠다.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평생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로컬사회에서 평생교육을 수행해야 할 도서관의 수는 전국적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공공도서관의 경우를 보면 2007년 3월말 현재 전국에 544개관이 개설되어 있고, 이는 인구 9만 명 당 1개관으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장서가 빈약하고, 전문가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서비스는 '공공'이라는 공무원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서관계에도 눈여겨 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곧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설, 경영하고 있는 소규모 민간도서관들이다. 민관도서관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처에 하나둘씩 생겨나서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한 어린이교육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방송을 타고 기적처럼 추진된 '기적의 도서관'이 속속 문을 열면서 이제 민간 어린이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자발적이고 친근하며 내실 있는 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보다 민간 어린이도서관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기도 한다. 민간 어린이도서관은 전국에 100여 곳으로 아직은 많지 않지만 시민의 자율성과 친근성, 프로그램운영

의 내실 면에서 볼 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서관계도 이를 간파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2006년 6월부터 서울 강남에 시범적으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어린이도서관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은 앞으로 국공립도서관의 어린이실 뿐 아니라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도서관들이 합세하여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그로컬시민의 평생교육은 어린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은 어린이에게는 기초생활교육으로서 필요하지만 학교교육 이후의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들의 새로운 인격과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어린이들에 대한 도서관의 평생교육은 시민정신의 기초형성을 위해 중요한 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은 평생 계속해서 새로운 능력을 갖춘 인간으로 변신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따라서 모든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어린이도서관들이 민간에 의해 활성화되어 가듯이 일반 시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들도 민간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간이 아무리 뜻이 있다 해도 재벌이 아닌 이상 사재를 털어 도서관을 경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도서관은 비영리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현상유지하기도 어려운 분야이다. 물론 사립도서관은 도서관법상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용료 등의 수입만으로는 운영경비의 충당도 어렵다. 따라서 민

간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평생교육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에서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정책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공공도서관이 직접 하지 못하는 사업은 민간도서관에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 협력을 위한 한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도서관 정책당국에서 도서관법개정을 추진하여 민간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민간도서관의 설립과 경영을 촉진하고,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민간도서관 경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예산 지원의 필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법령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을 장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 농장'이나 '라이브러리 호텔'과 같은 신종 사업을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장려함으로써 민간 도서관을 기업개념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이브러리 농장'은 관광지나 농촌지역에서 경영할 수 있는 농장을 겸한 도서관으로서 도시민들에게 가족단위로 여가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장도서관이다. '라이브러리 호텔'은 관광지나 각 도시에서 경영할 수 있는 숙박 시설과 도서관의 합성시설로서 관광객이나 여행자 그리고 가족단위 주말여행자들이 관광도 하고 정보도 활용하며 여가시간을 학구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신

종호텔이다. 이렇게 확대해가면 서점, 백화점 등 다른 업종에서도 도서관을 겸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정보자료의 활용은 물론 보다 질 높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들이 공공도서관과 연계된다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정보거점이 되고, 민간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의 분관이 되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활용과 평생교육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개념으로서의 도서관 경영은 필자가 오래전부터 꿈꾸어 왔지만 이는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근 외국의 경우에서도 기업 개념 도서관 경영의 성공사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11일 보도된 "테레사 수녀의 마음에 대기업 CEO의 머리"라는 신문기사(조선일보)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퇴직한 존 우드라는 사업가가 '룸 투 리드(Room to read)'라 불리는 도서관 사업을 전개하여 성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전개하는 이 도서관 사업은 개인이 네팔 어린이들을 위한 이타적 사업으로 시작하였지만 고객들에게 기쁨과 희망, 그리고 이익을 주는 사업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룸 투 리드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소개되어 있다 : www.roomtoread.org).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문화 여건을 최대한 활용, 아이디어를 짜내어 민간도서관 사업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해 시민 모두를 현명한 '그로컬시민'으로 육성하여 우

리나라가 인류사회에 희망을 주는 ‘동방의 등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로컬도서관’의 궁극적 사명이라 생각된다.

4. 사서선생님, 도서관의 교육 경영자

사서라면 사람들은 정적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분류 정리하거나, 대출 반납대에서 고객들과 별 대화 없이 책을 주고받거나, 때로는 한가롭게 책이나 보고 있는 한직’ 썸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과에서, 혹은 각종 도서관 정책세미나에서 사서의 전문성과 역할을 논의해 왔고, 지금도 논의하고 있지만 사서에 대한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도서관계가 아무리 외쳐도 시민의 메아리가 없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우리 사서들의 역할 정립에 대한 ‘외침’이 성실한 실천을 수반하지 않는 ‘공염불’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면 실제로 전문성을 높여야 하고, 서비스 정신을 높여야 한다고 논의 되었다면 실제로 서비스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러한 진전이 도서관 현장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어떤 개선 방안이든 실천을 수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경험에서 배우는 상식이다. 따라서 사서와 도서관의 전문성, 서비스 정신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반드시 실천을 수반해야 하며, 이는 사서들 스스로의 노력과 정책당국의 치밀한 정책 지원이 합치되어야 가능하다. 참 어려운 일이긴 하다.

학생들은 문헌정보학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도서관에 대한 ‘장밋빛’ 강의에 귀를 기울이지만 도서관 현장을 실습하거나 고객으로서 이용해 보고는 희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 ‘그 문제들은 앞으로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개선해 가야할 몫’이라고 훈계하면서 ‘지금 다 잘 되어 있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발전시킬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궤변을 늘어놓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선생들의 마음은 아프고 부끄럽다. 언제까지 이렇게 현실과 따로 노는 수업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비사서들에게 장차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민능의 도서관 경영자로 육성할 수 있겠는지?

이제 우리는 그로컬시대의 사서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하여 새로운 차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서의 자질 또는 역할에 무수한 논의가 있어 왔으므로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그로컬이라는 세계적 상황과 평생교육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사서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러한 사서상을 ‘그로컬 도서관의 교육 경영자’로 설정하고 싶다. 이는 도서관의 전통적 4대 기능인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과 경영이라는 기능으로 그 넓이와 깊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전통적으로도 교육과 경영 기능이 있어왔지만 그러한 기능은 매우 소극적으로 인식되어 별로 효용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서들이 교육과 경영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서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은 교육자

로서의 능력과 경영자로서의 능력 2가지로 종합될 수 있다. 우선 교육자로서의 능력은 주제전문성과 연관된다. 사서가 도서관 이용방법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상의 주제 전공을 가지고 내용면에서도 시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전공분야의 자료 발굴과 안내, 연구, 강의, 저술 활동을 함으로써 도서관의 '평생교사'가 된다면 책의 표피만을 어루만지는 사서상에서 교육자로서의 사서상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실을 담당하는 사서들은 페스타로치나 몬테소리의 교육정신, 아동발달과 어린이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린이와 학부모의 교사로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일반 시민을 담당하는 사서들은 주제전문분야별로 나누어 평생교육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공분야의 자료 발굴과 안내 및 교육서비스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해야 한다.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도서관이라는 실체를 '기업경영'이라는 관점에서 통찰하고,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적 경영사이클을 원활히 가동할 수 있는 전략경영능력이다. 도서관의 존재이유를 명확히 하고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종합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교육자 및 경영자로서의 능력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어느 도서관에서든 그로컬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사서상이라 하겠다.

5. 도서관, 시민의 평생교육 광장으로

지금까지 그로컬사회와 관련하여 시민과 도서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그로컬사회에서는 보다 새로운 시민적 자각과 실천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평생교육 제도의 체계화와 새로운 교육인프라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더욱 친근한 민간도서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민간도서관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물론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평생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민간사업으로서의 도서관 경영을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호텔'이나 '라이브러리 농장', '라이브러리 서점'과 같은 신종 민간도서관 사업의 장려 및 지원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의 모든 평생교육서비스를 공공부문이 전부 감당할 수는 없으므로 민간 경영자(CEO)들의 경영능력을 도서관 경영에 십분 활용하여 평생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로컬시대의 도서관 사서들은 지금까지의 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도서관의 교육경영자'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경영자로서의 리더십 능력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솔직히 사서가 없는 도서관은 도서관이라 할 수 없다. 동사무소 문고 등 사서가 없는 시설들은 과거의 마을문고처럼 언제 흐지부지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다. 규모가 크든 작든 교육경영자로서의 전문사서가 경영하는 도서관이 되어야만 평생교육 광장으로서의 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